

광주현대차 합작법인 7월 설립

광주형일자리 사업, 국내 자동차공장 설립 23년 만에 처음
행정절차 마무리 ... 6월 중 투자 협약식·7월 발기인 총회

광주형일자리(노사상생) 적용 첫 모델인 '광주시·현대차그룹'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상법상 주식회사)이 7월 중 설립될 전망이다. 자동차회사 설립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가 최종적으로 면제 결정되고, 투자자 모집도 상당부분 진척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초 '6월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민선 7기 계획은 불발됐으나 7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현실화되면 국내에선 무려 23년만에 완성차 제조회사가 새로 생겨난다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 옛 아시아자동차에 이어 광주에 본사를 둔 2번째 자동차 회사가 탄생하는 셈이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근거 마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와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지 5개월 만의 일"이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 착공,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양산이라는 당초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최종 통보를 해줌에 따라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중앙투자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통보를 받았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이 시장은 "광주시가 영리법인인 자동차공장에 직접 출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

해 간접출자에 필요한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전문성을 가진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자동차공장 사업에 우회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카진흥원을 통한 우회 출연 동의안은 지난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광주시는 24일께 신설될 완성차법인 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한다. 나머지 자본금

1817억원은 가운데 현대차가 437억원을 투자하고, 남은 1380억원은 광주시가 유치한 투자자들이 맡게 된다. 합작법인은 자본금 2300억원 외 사업비 3454억원은 외부 차입한다.

이 시장은 "이 달 중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7월 중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거쳐 합작법인 설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의 여름 ... 물안개 사이를 걷는 여인들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29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시민들이 쿨링포그(주위 기온을 낮춰주는 인공 물안개) 사이를 거닐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트럼프 친서 받은 김정은...“흥미로운 내용 심중히 생각”

“정치적 판단능력·용기 사의”
북미 협상 재개 돌파구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에 만족을 표하고 친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 매체가 23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 도

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김 위원

장이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잇따라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지난 17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 “생일 축하 편지”라며 “어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취재진과 문답을 하다가 “어제 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북미간 친서교환을 긍정적인

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정부는 북미 정상 간 진행되는 친서 교환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교착 속에 최근 김 위원장의 대미 친서 전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성 대북 친서까지 한국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런 북미 정상 간 소통을 비핵화 대화 재개의 청신호로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

알
립
니
다



2019 청소년 축제

7월 13일(토) 광주 금남로공원 특설무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7월 13일(토)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특설무대에서 '제8회 청소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밴드, 댄스, 보컬, 풍물 등 경연과 3:3 농구대회 등이 펼쳐지며 각 대학 인기밴드 및 공연팀의 특별공연도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대학의 입학 홍보관도 운영되어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7월 13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특설무대
- 경연 부문 : 밴드, 댄스, 보컬, 풍물, 기타 공연, 3:3 농구대회
- 참가 자격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 참가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전화 062-220-0555
- 참 가 비 : 무료
- 주 최 : 광주일보사, (사)아시아문화

光州日報社

청와대 경제라인 전격 교체

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동신고 출신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론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광주 동신고 출신 이호승(54)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각각 장관급, 차관급 자리로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 도출을 강조했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아 경제정책 입안의 한 축인 청와대 경제라인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